

사회

조선대 총장 선거 잡음 장기화 조짐

대학 선관위 "전호중 담합 의혹 당선무효" 의결 전호중 측 "선관위, 이사회 결정 반복 자격없다"

제14대 조선대 총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 사회는 물론 지역 사회에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당장 대학 내에서 수시모집이 진행 중인 데다 정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 간 대립 격화는 대학 위상 추락은 물론 지역갈등 요인으로 증폭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선대 총장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이사회에 의결 내용(전호중 후보 최종 당선 의결)을 뒤집는 결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총장선관위는 일부 예비후보자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전호중 총장의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고 밝혀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 스스로 참여한 대립을 종결짓기 어려운 만큼 신속히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전호중 당선자 측은 물론 최근 재재흥 교수가 1위 후보자 명의로 낸 발표문에서 "이사회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의결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

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힌 만큼,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재재흥 교수와 강동완 교수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접수·심의한 결과, 이의신청 기간(3일)에 이사회가 열려 절차적 하자(3명)를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전 총장 측 선거운동원이 일부 입후보자와 담합을 시도한 의혹이 있어 표결(7대3)을 거쳐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총장 측은 "선관위 역할은 예비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이라면서 "이사회 결정에 대한 무효 선언은 마치 도지사나 시장 선거에서 당선자에 대해 선관위가 당선 정지를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구성원도 이해 못할 억지"라고

반박했다. 또 이사회 결정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에 근거한 만큼 법원의 결정없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말하는 이의신청 기간(3일)도 대학원 관례에 따르면 선거결과 공고일을 포함한 9월 22~24일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접수가 26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총장 측은 "선관위는 전 후보의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예비후보에게 지지를 호소한 정당한 활동을 부정행위로 간주했다"면서 "반면 선거운동원도 아닌 예비후보 5명이 특정후보 지지 성명을 낸 것은 문제삼지 않는 등 편파적인 판단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인화학교 무성의 대응 또 비난받는 광산구

홈피 '특별 게시판' 답변 한꺼번에 복사 '붙여넣기'

영화 '도가니'의 돌풍으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관계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관할 자치구가 무성의한 태도로 또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온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인화학교 홈페이지에 성폭행 문제를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의견을 모으기 위해 홈페이지에 '인화학교 특별게시판'을 만들었다.

이에 앞서 '도가니' 관람객들은 영화를 관람한 뒤 광산구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을 통해 학교 폐쇄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이날 현재 참여게시판에 등록된 글들은 모두 특별게시판으로 옮겨졌다.

광산구는 "국민의 질책과 분노의

힘으로 인화학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질책, 비난, 토론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고 특별게시판을 만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광산구는 인화학교 성폭행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담긴 다수의 게시물에 원문적인 내용을 담은 형식적인 답변을 그대로 복사, 한꺼번에 '붙여넣기'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비난이 거세지자 광산구는 형식적 답변을 중단한 채 게시글 하나하나에 사과 내용을 담아 답변을 올리려 노력한 상태다.

구청 측은 무성의한 답변을 본 시민 김모(51·광주시 광산구)씨는 "대화나 토론이 아닌 형식적 답변을 그대로 늘어놓는 구청의 모습에 실망했다"며 "관계당국의 이 같은 태도가 인화학교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광주지검, 항소하기로

검찰이 무죄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하고 공판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교동창인 변호사가 준 정보로 투자한 것은 명백히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의 기회이지 일반적인 투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선 부장판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정관리 사건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같은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했는데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면 검사가 사건 관련자에게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해도 된다는 말이야"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선 부장판사가 재직했던 광주고법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재판 관할 이점을 요청할지, 1심처럼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할지도 숙고하고 있다.

/이종필기자 golee@kwangju.co.kr

최근 5년 광주시 장애인 성폭력 39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영화의 무대인 인화학교가 소재한 광주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39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2007년 199건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지난해 3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중 광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

력 발생 건수는 모두 39건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209건 ▲경기 204건 ▲충북 103건 등이다. 인구 100만명당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부산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1건, 경기 18건 등 순이다.

박대해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늘어난다는 추세인 만큼,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기 성추행 고대생 3명 모두 실형

3년간 신상 인터넷 공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6년간 지낸 같은 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큰데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마저

겪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며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3명은 지난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고려대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인의 날'인 2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기념행사 여흥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환한 표정으로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완도 선착장 화재 어선 4척 불타

주말 휴일 잇단 사건 사고

10월의 첫 주말과 휴일인 1일과 2일 완도 한 선착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어선 3척이 불에 타는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2일 새벽 3시 20분께 완도군 신지면 한 선착장에 정박 중인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RP) 어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은 인근에 있던 4~5급 3척을 모두 태우고 1척 일부를 태워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3시16분께에는 장성군 장성을 용강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이모(여·38)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의 아들 김모(13)군이 숨졌다.

당시 김군은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순간 충격 때문에 차에서 뿔겨 나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이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중부취재본부=김홍호기자 yongho@

여수 모녀 사망 화재 방화 가능성 주택 바닥재 휘발유 추정 물질 검출

지난달 여수의 한 주택에서 난 화재로 모녀가 숨진 사건(광주일보 9월 5일 6면)과 관련, 당시 화재가 방화로 추정되는 감시 결과가 나왔다.

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밤 9시20분께 여주시 소라면 덕양리 2층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최모(여·44)씨와 딸 박모(16)양이 숨졌다. 당시 최씨 모녀와 함께 집에 있었던 동거남 김모(44)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현재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1층 마당에 잠깐 나와있었는데 2층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모녀를 구하

기 위해 집안으로 뛰어들었다가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약 1년 전부터 최씨 모녀와 동거중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바닥재와 김씨의 옷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아, 방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또 경찰은 "김씨가 돈 문제로 최근 최씨 모녀와 자주 마다툼을 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순식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모녀가 한꺼번에 숨진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0월 4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법원소장직(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아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평론/명예직**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